

# “수화로 법회보고 찬불가 불려요”

## 신행현장

### 농아불자와 함께 ‘심여회’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부산 자비정사에 가면 아름다운 손짓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을 졸업한 이들의 모임인 심여회(心如會, 회장 김애순) 회원들과 부산농아불자회(회장 김태욱) 회원들이 법회를 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하는 스님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겐 없는 것과 마찬가지. 부처님 법도 아름다운 찬불가도 들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 농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이들이 심여회 회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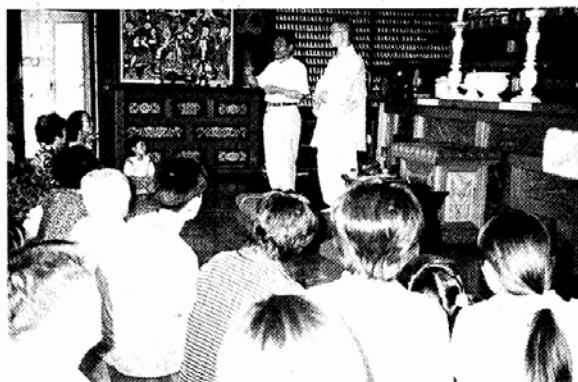
우렁찬 예불 소리대신 수화만이 마음의 소리되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법회날, 심여회 회원들의 손짓은 바빠진다. ‘한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통역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4일 해인스님의 법문을 수화로 통역하고 있던 송준관(50) 거사는 법문 통역뿐 아니라 매월 두차례의 법회때마다 집전과 기초교리 강좌를 도맡고 있다. 송거사의 손짓으로 깊은 불법의 세계는 비로소 생생하게 농아불자들의 마음에 전해진다. 송거사는 쉬운 말로 어려운 경전을 풀기 위해 불교교리 책자와 사전, 후련까지 펼쳐놓고 며칠전부터 법회준비를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다. 그가 2년동안 작성해 놓은 법회일지 곳곳에는 재정적 어려움, 농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개선 사항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맨처음 5명의 농아인과 함께 귀연포교원에 서 법회를 시작했을 때 심여회 회원들은 발원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귀가 되고 소리가 되어 부처님 법 한말씀이라도 전하겠다는’ 그. 그렇게 시작한 법회가 이제 2년을 넘어서며 50~60명 회원이 등록된 부산농아불자회로 자리를 잡았다.

### 부산불교대 수화반 졸업생

### 97년 수화합창단 창단

### 농아가정 자녀학습지도

집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여회 회원은 20명 남짓. 그러나 적은 회원수로 일구어 낸 활동들은 놀라울 정도다. 97년 수화합창단은 창단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 수화 합창, 장애인 고아원 방문, 수화반 산행회 발족, 장애인의 날 안내 자원봉사 및 수화 노래 등 각종 행사마다 수화로 찬불가를 공연해 감동을 전해주었다. 부산농아불자회와 함께 발우공양, 성지순례, 하계수련회 등을 개최해 불



◇사찰로 성지순례를 간 부산농아불자회원들이 송준관거사의 통역으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심을 다지는 한편 통역은 물론 농아인 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학습지도와 예절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영우 회원이 만든 홈페이지(dooosomooa.co.kr)로 사이버 공간에 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심여회 여러분들의 수화통역으로 멀게만 느꼈던 불법이 생활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법문도 듣고 기초교리도 배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부산농아불자회 김태욱(30)회장은 수화로 이렇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제는 부산장애인협회도 인정하는 모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아온 농아인들이 마음을 합사리 열지 않았다. 또 재정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때 마다 오삼석(60) 심여회 고문은 어느절에서 만났던 한 여자 농아인을 떠올리며 다

시 발심하곤 했다고 회고한다. 법회 후 법당 앞 기둥을 붙잡고 울고 있던 그 여인은 오 고문을 수화의 세계로 이끌었고 지금은 오 고문은 심여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다. “부산, 경남에만도 5천여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와 정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님과 불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원들의 바람은 너무나 간절하다. 우연히 수화를 배우게 된 이들도 있지만 가족 중에 청각장애를 가진 회원도 있다보니 자신들이 하는 일은 바로 내 가족을 위한 일임을 아는 까닭이다. 아직도 부처님 법 알지 못하고 고통속에 있을 농아인들이 많아 심여회 회원들의 아름다운 손짓은 정해진 날, 시간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종교 신념 따른 불상파괴 광신과 무지가 낳은 훼손”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아프카니스탄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바미안 대불이 탈레반 정권의 무지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등 국제적인 단체와 국가에서 인류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다각적인 보존방안이 논의되고, 국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성명을 내는 등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폭력 앞에서 불상과 불교 그리고 평화의 기둥이 흔들린 것은 분명합니다.



해월스님  
공주 원효사 주지

아 공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연화색 비구니에게 “네가 먼저 나를 마중나왔다 해서 나를 먼저 본 것이 아니며 수보리가 이미 나를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래는 박칼리라와 대화에서 “법을 보라, 법을 보는 자나 보는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에 집착하는 수행자들의 편견을 바로잡아 주신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법에 근거해 이번 사태를 본다면 그들이 파괴의 대상으로 삼은 대불은 공성과 법을 깨닫게 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으로 대불의 존재가 법의 존엄과는 무관하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불제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바달라의 폭력 앞에서 여래는 폭력 앞에 죽지 않는다며 의연히 당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이번의 너무도 참담한 사태에 직면하면서 저들의 무지와 폭력성을 감싸안을 큰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심수와 절복의 방편을 깨우쳐야겠다는 원을 다시한번 단단히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원한을 원하지 않던 이질적인 문화와 문명, 환경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우리는 충돌보다는 조화, 파괴보다는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의무와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틀 속에서 호흡을 타고 잘 조화되는 집단이나 국가·문명은 살아남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3천년전 설파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국을 지나도 옛스럽지 않고, 만년을 흘러도 항상 오 늘인 것처럼 영원할 것이니 우리는 진리의 길을 향해 불퇴전의 의지로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폭력앞에 죽지 않는다’

### 부처님의 의연한 가르침

세우고 수 백년의 역사를 통해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왔던 인류의 고귀한 정신이 무지와 공포로 훼손됐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선의 배봉정적에 의해 엄청난 희생과 손실을 입었던 우리 불교 역사를 돌아보아 우리는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철저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모이신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상에 오르시어 설법하시고 다시 인계로 하강하시던 때의 모습을 성전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화색 비구니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처님을 마중하고 법기 위해 법천의 물로 변하여 마중을 나갔습니다. 또 수보리 존자는 수행처소에서 부처님께서 하강하심을 알고 부처님께로 나아가며 말고 공성(空性)이 곧 여래라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여래의 성품인 공성을 관함이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에 앉

## 생활속의 불교

## 나뉘면 높아진다

조화로운 인간 관계란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기는 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된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받아 주는 것, 그것이 열린 마음이다.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가만히 있어도 열린 마음이면 그건 주는 마음이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 저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에 더 이상 울타리가 없다. 벽도 없

고 담장도 없다. 넓디 넓은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못 짐승들이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는 떠난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런 시비도 없다. 갈등도 없다. 장애도 없다.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울타리가 좁으면 들어 설 자리가 좁다.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쳐라.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라. 넓은 들판에 아무리 많은 양을 쌓아놓아도 여전한 허리가 남는다. 열린 마음은 강하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 누구와도 맞설 일이 없다. 맞서지 않으니 누구도 대적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곧

허공과 같을진대 누가 감히 꺾으려 들겠는가. 높이 오를수록 낮아져야 한다. 많이 가질수록 가난해져야 한다.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라.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라.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어라.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 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여들지 않는다. 그리되면 모두가 나와 더불어 살고 아깝없이 나누기를 즐겨 할 것이다. 거기에 자유인의 길이 있다.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세우지 않은 것과 높이를 다를 수는 없다. 그래서 낮은 것이 높은 것이고 열린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다. ■龍眼

###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2001학년도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실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원도에 나가시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운허스님, 화운사 조실 김대은 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 등화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재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장으로 안덕암 대종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종현 대선사 취임

1997. 8. 22 제 6대 학장 전용만 박사 취임

1998. 5. 7 전국 및 해외에 12개지역 지방교육원 개원

1999. 9. 제 7대 학장 한정섭 박사 취임

2000. 12. 제 8대 대학원장 김정수 큰스님 취임

# 한국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1. 모집학과**

(1) 대학 :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 대학원 :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2. 입학자격**

(1) 포교학과는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2) 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한숙출연이 가능한자  
(3) 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 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반 명함판사진 3매 (4)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입학시)

**6. 원서교부 및 전형**

(1) 중앙교육원 (02)969-2410, (FAX) 02-969-4981  
(2) 연수원(상락학 수도원) 031) 584-0657  
(3) 진해교육원 (055)546-4186 (4) 제천교육원 (043)646-3023  
(5) 충북교육원 (043)223-9026 (6) 대구교육원 (053)743-1178  
(7) 부산교육원 (051)703-7237 (8) 안산교육원 (031)431-4951  
(9) 하와이교육원 (808)550-4313 (10) 포천교육원 (031)532-4565  
(11) 구미교육원 (054)455-1068 (12) 수원교육원 (031)244-4467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 전**

(1) 전향료, 입학금, 수업료 면제 (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2) 본 대학은 초종교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합.  
(3) 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동시에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 (02) 962-1666, 969-2410

### 한국불교예술대학 제4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전통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예 기능보유자) 김태강 큰스님의 범음과 범무를 전수코저 제4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 모집기간 : 2001. 3월 12일~4월 9일
- 교육과정 : 1) 2학기(1년) - 기본과정, 제반의식 교육  
2) 4학기(1년) - 연구과정, 제반의식 교육
- 동참회비 : 월 10만원
- 전임교수 :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재 제 8호 작법무 준보유)
- 특 전 : 1) 기본과정 1,2학기 수강자는 수료중수여.  
2) 3,4학기 연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품수자격증을 수여함.  
3) 우수 수료자는 부산시 영신재보존회 회원 또는 작법무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
- 문 의 : 02)962-1666, 969-2410 Fax : 02)969-4981  
부산 분원 051)556-1715 Fax : 552-7447 (삼불사)
-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수
1년 기본과정	1학기 · 육법공양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2학기 · 친수바라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1년 연구과정	3학기 · 운심계 작법무, 사다라니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4학기 · 삼귀의 작법무, 대계 작법무 · 의식 (석문의범) 강의	24주 수·목·금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시간은 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한국불교예술대학